

성흥제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선출

앞으로 2년간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이끌 협의회장으로 성흥제 고창읍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됐다. 고창지역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 의회는 지난 17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선출과 향후 협의회 발전적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신임 성흥제 협의회장은 고창군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일해 왔고, 고창읍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성흥제 신임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의회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심이 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의 부회장은 성내면 주민자치위원회 김석봉 위원장 사무국장은 대신면 주민자치위원회 신정식 위원장 감사는 흥덕면 주민자치위원회 백석기 위원장 고문은 전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의 김영창 협의회장 성승준 주민자치위원회 홍성래 위원이 각각 임원직으로 선출됐다. 또 이날 퇴직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도 심덕섭 군수의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계화면, '희망동이' 출산 축하 간담회 개최

계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출생자 가족을 초청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출생축하회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7년도를 시작으로 올해 7회째 개최되는 출산 축하 간담회는 계화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십시일반하여 계화면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하고자 뜻을 모아 매년 추진하고 있다. '22년도 중 계화면에 출생 등록한 출생자 가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공감하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안을 위해 건의하고 싶은 정책이나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출생자 가족 김모씨는 "바우에 오랜만에 아이들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아이가 마을의 활력소가 되었다"며 아이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나타냈다. 박병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저출산·인구 절벽사태에 이렇게 소중한 아기를 출생한 것은 크게 축하하고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은진 계화면장은 "계화면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수 있는 환경,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금산면 지사협·어부바봉사단, '행복밥상' 운영

김제시 금산면(면장 서효연)은 지난 17일 금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영준)와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단장 홍성열)은 '바우행복밥상' 탕수육 도시락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바우행복밥상 사업'은 시기에 맞는 특색있고 영양 높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홀로 어르신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부바 봉사단은 홀로 어르신과 거동불편 어르신 360세대에, 금산면 지사협은 1인 정장년세대의 조손가족 등에게 탕수육 40개를 전달하였다. 홍성열 어부바봉사단장은 "이번 영양점진 탕수육은 어부바봉사단 회원들이 재료 준비부터 요리까지 정성스레 준비하였다며, 모든 분들이 이웃의 따뜻한 정으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공공기관감사협 여성위, 감사인 역량강화 워크숍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전북 대병원 상임감사 이해숙)는 여의도 한국고직원공제회 서울 본부 그랜드홀에서 여성감사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명희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격려차 참석했으며, 90개 공공기관 감사 및 여성감사인 170여 명이 참석했다. 여성감사인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문강분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이론과 실무', 감사교육원 김수중 교수의 '공공감사의 이해'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소통의 장 시간이 마련되며 여성감사인 상호간의 교류와 감사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미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아람 기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앞장

서신동 주민자치위·지사협, 피해복구 구호성금 320만원 전달

전주시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내 8개 자생단체와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난 17일 성금 32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월 6일 새벽 서아시아 남유럽에 걸쳐있는 튀르키예 나라에 7.8이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계속되는 강도높은 여진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사망자는 4만 1000명을 넘어섰고 외에 부상자 수는 튀르키예에서만 10만1500명이며, 1만3000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서신동 자생단체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은 구호성금을 마련했고, 마련된 구호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튀르키예·시리아 현지 피해복구를 위해 전달한 것이다. 이광우 서신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진 발생 후 200시간이 지나서도 생존자가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2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현장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 큰 기적을 만드는 일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상목 서신동장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동 주민들과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그분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지역 취약계층과 힘든 이웃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자원봉사 등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장계농협, 농가소득증대 위한 한우 소비촉진 나서

장계농협(조합장곽점용)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여파로 사료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한우 가격의 하락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 보탬이 되고자 한우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 장계농협 하나마트에서 2월 17일(금)~ 20일(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지만 소비자 가격이 여전히 비싼 이유는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이다. 특히 몸집이 큰 고기류는 다른 육류에 비해 유통이 좀 더 까다롭다. 생산자에서 우시장·도축장·중간도매상, 도매상, 유통채널, 소비자 등 6~8단계로 나뉘는 역대급 한우의 과잉 공급으로 농가 손에 쥐어지는 소 값이 하락하는 동안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존 계획인 3일간에서 10일간으로 확대하여,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수=곽관호 기자



완산소방서, 지역아동센터서 화재·심폐소생 교육

전주완산소방서 김장수 서장은 평화동에 소재한 '신한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난 17일 화재안전 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화재 및 심정지 사고 발생 시 초기대처와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센터 관계자와 초등학생 20여 명이 참가한 심폐소생술 주요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요령, 안전사고 예방 수칙, 심폐소생술 개요,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담았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상태에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으로, 골든타임 4분 안에 실시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심폐소생술 방법으로는 '심정지 및 무호흡 확인 119 신고 도움 요청, 가슴 중앙에 딱지를 끼고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하기 순이다. 심폐소생술 교육 희망하는 경우 전주완산소방서 교육담당부서(063-220-4244)에 연락해 협의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장수 서장은 "심정지는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아록 기자

전북은행, 고창군에 선물꾸러미 100박스 기탁

고창군은 지난 17일 오후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으로부터 식료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 100박스(300만원 상당)를 지원받아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김영민 전북은행 부행장, 이미영 고창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된 선물꾸러미는 고창군 14개 읍·면의 조손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지난해에도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100박스 등 정기 후원금품 50박스를 기부하는 등 지역상생을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영민 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손길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한발 다가는 전북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 온정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조손, 한부모



가구 등 사회적 약자가 고립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고창군에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농협, '지역인재육성'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은 고창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근 고창농협 하나마트 2층 문화센터에서 군지부 이문구 지부장과 농협인원, 농협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고창농협 지역인재육성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올해는 대학생 51명, 초등학교 졸업생 39명 총 90명을 장학금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62,700천원을 지원했다.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오늘 선발된 조합원자녀 장학생 여러분들은 고창인 고창과, 농업, 농촌을 기약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당부드리고, 고령적인 학자금에 지급해야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조합원 자녀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창농협은 2007년부터 장학 사업을 시작해서 2023년 현재까지 총 1,141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총 6억8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인재육성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까지 총 1,141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총 6억8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인재육성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장애인복지관, 지역주민과 함께 헌혈 캠페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2월 17일 금요일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 혈액원과 함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도움이 필요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이홍교 관장은 "헌혈이라는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은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 혈액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매년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 지역 주민 및 이용자, 종사자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금구면 복지기동대 단열 점검 봉사

김제시 금구면(면장 두일균) 복지기동대(대장 권혁윤)는 지난 17일 금구면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대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수급자 어르신을 위한 보일러 수도, 단열 점검 봉사를 실시했다. 올 겨울 유난히 심한 추위로부터 보일러와 수도 동파를 방지하여 가정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대상자 어르신께서는 "올 겨울 추운날이 계속돼 보일러나 수도가 작동되지 않을까 걱정 속에 지내왔는데 복지기동대가 나서서 들여다 봐줘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권혁윤 복지기동대장은 "유난히 추웠던 겨울 보일러, 수도 동파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가, 2023년은 좀 더 다수의 주민들과 만나는 한 해가 되도록 발로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굿네이버스 자립기관·더초청교회, 자립청년 후원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지립지원담당기관(기관장 전숙영)은 전주 더초청교회(목사 이강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후원금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더초청교회는 선교적 선교회(Missional Cell Church)로, 전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가족공동체 마음을 담아 이번 후원금품 외 300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초청교회 후원소식을 접한 이혜민 18coffee 대표는 수미의 일부를 후원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지립지원담당기관은 이번 더초청교회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전라북도 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장학금 목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강열 더초청교회 목사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나눔을 실천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도움이 손길이 닿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숙영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지립지원담당기관장은 "지역사회 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후원 해준 전주 더초청교회에 감사사를 드린다.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지립지원담당기관은 앞으로도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지립지원담당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39조의 2 (자립지원담당기관의 설치·운영)에 의거해 2022년 3월 개소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영아 기자